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금연상담전화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용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3월 13일 월요일 (음 2월 16일) 제176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박근혜, 사지로 떠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퇴거를 앞둔 12일 오후 서울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으로 짐을 실은 용달차가 들어가고 있다.

현재 탄핵인용 이틀째인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마지막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탄핵 환영' 폭죽을 쏘아 올리고 있다.



촛불은 축포를 올렸다

박근혜 '파면' 국민들 '환호'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에, 국민들은 두손을 들고 환호했다.

현재는 지난 1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세종 현재 1층 대심관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주문을 읽었다. (관련기사 3면)

이정미 현재소장 권한대행은 선고에 앞서 "재판과정 중 이뤄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이라며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선고에 임하려 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을 파면 사유로 꼽았다.

현재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각종 인사자료나 국무회의자료 등 공무상 비밀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점을 인정했다. 최씨는 문건 내용을 수정하거나 대통령 일정을 조정하는 등

▶ 현재, 탄핵심판 선고서 만장일치로 '인용'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익 추구 도운 행위 헌법·법률에 위배... 전국 곳곳 '축제 분위기'

관여했다.

현재는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안중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 설립하라는 지시를 해 대기업들로부터 488억원을 출연받아 미르 재단을, 288억원을 받아 K스포츠재단을 설립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했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다고 봤다.

현재는 최씨가 K스포츠재단 설립 하루 전에 더블투K를 설립해 운영한 점도 주목했다. 박 대통령이 안 전 수석을 통해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투K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 했다는 판단이다. 또 박 대통령이 롯데그룹에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해 70억원을 요구, 실제 송금이 이뤄진 점, 최씨가 김종 전 문체부 제2차관을 통해 K스포츠재단과 더블투K를 이용해 이익을 취할 방안을 마련한 점도 모두 인정했다.

현재는 이런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사익 추구를 도운 박 대통령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결론 지었다.

이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 행위는 최순실 이익을 위해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의 설립, 최순실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박 대통령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현재는 특히 박 대통령이 최씨와 관

련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숨긴 잘못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부인하면서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며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이 검찰과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 압수 수색도 거부한 점을 꼬집었다.

이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 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축하하는 기념으로 열린 촛불집회가 10일과 11일 전국 곳곳에서 열렸다. 이날 국민들은 현재의 탄핵 인용에 기뻐했다.

이들은 "촛불시민은 부당한 권력을 탄핵시키는 것이 끝이 아니며 새로운 세상을 향한 긴 여정의 시작임을 안다"면서 "아래로부터 민주주의의 역량을 성장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재용 기자

도내 기관 야권, 현재 탄핵인용 '환영'

송하진 도지사 "시민의식 승리"

김승환 교육감 "헌법질서 회복"

민 "국민주권 승리의 날"
 국 "현재 결정 수용"
 정 "끝이 아니라 시작"
 전주상의 "분열 종식해야"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을 인용하자 송하진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 야당측에서는 일제히 "당연한 결과이자 촛불민심의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송하진 지사는 "꺼지지 않고 뜨거웠던 촛불민심의 승리, 정의롭고 당당함을 잃지 않았던 시민의식의 승리"라며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온다는 진리를 보았고, 도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헌법 정신과 가치의 준엄함이 증명됐다"며 "국가 존엄과 법치 국가의 근간을 세웠고 현재 결정 승복으로 아름답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승환 교육감도 "국민의 헌법 수호에 대한 의지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의 승리"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탄핵결정은 국민의 이성적 민주주의 의식, 헌법 수호의 의지가 이끌어 낸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헌법질서가 회복되고 국민들의 자존감이 회복되는 첫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과 국민의당 전북도당, 정의당 전북도당 등 도내 야당에서도 성명서 또는 선언문 형식으로 자료를 내고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대한민국 자유민주 질서를 수호한 민주적 대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오늘을 국민주권 승리의 날로 선포한다"며 "성숙한 국가발전과 국민을 주인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의 위상을 갖추고 21세기 세계 역사의 중심국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도 "현재의 결정을 경이하게 수용하고, 광장에 모인 준엄한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정의가 바로서는 대한민국의 시작을 알린다"며 "역사적 오늘, 국민의 80%가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민심을 받들은 현재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전북도당도 이날 성명을 통해 "박 전 대통령 파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파면 다음은 구속 수사"라고 주장했다.

전주상공회의소 이선홍 회장이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을 계기로 정치권은 오랫동안 지속된 분열을 종식하고 사회통합에 앞장 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현재 탄핵 인용, 축제 분위기 속 마지막 촛불집회... 공감의 힘으로 희망 만든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후 첫 주말인 11일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렸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5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촛불과 함께 한 모든 날이 좋았다! 20차 범국민행동'을 진행했다.

이날 촛불집회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박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매주 열렸던 촛불집회 대대원의 막이 내리기 때문이다.

특히 134일간 한결같이 주장한 탄핵을 끌어낸 집회는 축제의 장이었다. 연인원 1,600만명이 넘는 참석자와 다수의 지지 국민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

이기도 했다. 이날 65만명(주최측 추산)의 시민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환호하고 기뻐했다. 또 현장 사상에 탄핵심판 파면에 기여했다는 자부심도 컸다.

1시간가량 시민 자유발언으로 이뤄진 1부 행사 뒤 이어진 2부 집회는 촛불관리선언문 발표와 시민 자유발언, 무대 공연, '촛불승리' 기념 폭죽과 파도타기 퍼포먼스 등으로 구성됐다. '촛불관리선언문' 낭독에 나선 시민들은 "우리가 함께 밝힌 촛불은 민주주의와 인권이 권력을 독점한 소수 세력에게 유린당하고 조롱당하는 참담

한 현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였다"면서 "촛불시민은 그 어떤 울음과 아픔도 함께 끌어안으며 공감의 힘으로 희망을 만들어냈다"고 밝혔다.

행사 말미엔 일제히 하늘로 폭죽을 쏘아올려 촛불과 보라색 불꽃으로 밤하늘을 비추는 장관을 이루기도 했다. 분집회를 마친 뒤엔 거리행진이 이어졌다.

퇴진행동 측은 본래 종료 일대와 총리공관만 행진할 방침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아직 청와대에 머무름에 따라 청와대 방면 행진을 추가했다. 행진 뒤 오후 8시부터는 광화문광장에서 '촛불 승리 콘서트'가 진행됐다. /김민재 기자

이날 무대에는 전인권, 뜨거운 감자, 우리나라, 한영애, 조PD 등 그동안 촛불집회에서 공연을 모인 가수들이 마지막 무대를 장식했다.

탄핵이라는 1차 목표를 달성한 퇴진행동은 앞으로 ▲박 전 대통령 구속과 공범자 처벌 ▲박근혜 정부 적폐 청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퇴진 등에 주력한다.

촛불집회는 이어지지만 예전처럼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지는 않는다. 퇴진행동은 오는 25일, 4월15일에 촛불집회를 열고 중대한 사안 발생시 필요에 따라 집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김민재 기자